

# 의료공백 속 연중무휴 운영...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든든'

### 평일은 물론 주말·휴일도 자정까지 운영...밤에 아이 아파도 시름 덜어 광주기독병원 7개월간 1만2천명 이용...시, 북·광산구 2곳 추가 계획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공백이 장기화 한 가운데 광주지역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차질 없이 운영돼 공공병원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던 부모들은 "연중무휴 운영중인 어린이 병원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안도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광주기독병원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문을 연 이후 지난 3월 24일까지 7개월 여 동안 총 1만 2348명의 아이들이 병원을 이용했다.

하루 평균 59명을 웃도는 어린이가 진료를 받은 셈이다. 토·일·공휴일에는 일 평균 117명이 이용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지난 30일 밤 10시에 광주시 남구 양림동 광주기독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진료실 앞에는 아픈 아이를 안은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진료실 앞 대기실은 아이들 기침소리와 칭얼거림으로 소란스러웠지만 부모들은 얼굴에는 안도감이 퍼졌다.

병원을 찾은 부모들은 "의정갈등에 흑시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차질없이 진료가 진행돼 다행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인들의 집단행동으로 대학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이 든든하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걱정과 의사와 간호사들은 능숙하게 아이를 달래며 아픈 곳을 살폈다.

18개월 된 아이가 예방접종 후 저녁에 갑자기 열이 올랐다는 이재경(41)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도 이용해보지만 아예 전화를 안받거나 너무 어린 아이는 안 받으려 하더라"며 "전에는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곤란했는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소아 청소년 관련 심야 병원이 없는 전남지역 부모들의 발길을 이어졌다.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열이 많이 나 주에서 방문한 신유빈(여·35)씨는 "심야병원마저 없었으면 대학병원으로 가야했는데, 대학병원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며 "최근엔 전공의 파업으로 대기시간이 더 길다고 해 걱정했는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했다.

2살 난 딸이 39도의 열이 나자 완도에서 2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온 부부도 있었다.

배운서(여·39)씨는 "완도나 근처 지역에는 주말 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없다. 이전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련 기사를 봤던 게 기억나 여기로 왔다"면서 "전남 지역에도 이런 병원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병원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이 진료한다.

병원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 30분-자정,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자정, 일요일·공휴일은 오전 10시-자정까지다.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반응이 좋아 5



지난 30일 밤 10시에 광주시 남구 광주기독병원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부모가 곁에 시달리는 아이를 데리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개 자치구 중 거주 아동 인구(1~18세)를 고려해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에 각각 한 곳씩 총 2곳에 심야어린이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해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신청한 운영시간에 따라 병원

당 1억 6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모들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추가 운영을 환영하고 있다.

북구에 거주하는 김다솔(여·28)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은 대기시간이 너무 긴 데다 진료비가 비싸 아이가 심하게 아픈 게 아니면 주저하게 된다"면서 "북구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새로 생긴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hey1@kwangju.co.kr

## 전남대·조선대병원 진료시간 축소 논의 본격화

### 오늘·내일 의대교수 회의...전남대 55%·조선대 42% 사직서 제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의 진료시간 축소 논의가 본격화돼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0여명이 넘는 전남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선대 의대교수는 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대 전체 의대 교수 400여 명(병원 임상 교수·해의 연수자 포함) 중 55%(220여명)가 사직

서를 냈다. 조선대 의대에서는 교수 161명 중 42%(68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각각 1일과 2일 오후 전체 의대교수 회의를 열어 개별로 제출한 사직서 일괄 제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투쟁 여부다.

양 대학 비대위는 의대교수 전체회의에서 진료

시간 축소를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52시간 준법 투쟁을 의사 각각의 판단에 맡겼지만 실제 준법투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필수진료과를 포함한 전체 교수들의 준법 투쟁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대의대교수협의회(의협)와 전국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대차 현황 등의 보고가 함께 이뤄진다. 점에서 전국협의의 입장이 교수들의 선택에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상급병원 이송 거부 33개월 아이 끝내 숨겨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B 병원 측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그러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9곳 이외에 A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준 곳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 /연합뉴스

징계 정당 판결 2세

## 친구 평판 저하 게시물·심리적 압박...학폭 해당

법원이 온라인상에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광주의 한 중학교 A학생의 부모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학급 친구인 B군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고, SNS단체 대화방에 선배를 초대해 B군을 위협하게 한 사실, 모둠수업 과제제출에서 B군을 배제한 행위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은 봉사 6시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학생 특별 교육 이수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군측은 피해학생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의 평판을 저하할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학교폭력 유형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선배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것은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B군과 화해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B군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군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이 처분은 공익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1년여 만에 다시 재판에 나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가운데)이 지난 29일 오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법복 다시 입고...법원장이 직접 재판 나섰다

"오늘 민사 5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태(57·사법연수원 25기)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3호 법정의 재판장석에 앉아 재판을 시작했다.

1년 2개월 전 벗었던 법복을 다시 입은 박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박지법원장이 다시 법복을 입은 이유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 맡기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제5민사부를 신설하고 직접 재판에 나섰다. 일단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재판당 받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난도 있는 사건위주로 83건을 배당받았다.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건들이다.

이날 토지인도,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진행 광주고법도 2개 재판부 늘려 배기열 광주고법원장도 재판

금, 사해행위취소, 퇴직금 청구 등 항소심 20건의 민사 항소심 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 박지법원장의 재판 진행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됐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꼼꼼히 듣고 살폈음에도 시간이 남아 다음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연륜이 묻어나왔다.

광주고법도 지난달 19일부터 신속한 재판을 위해 2개의 재판부(민사4·5부)를 늘렸다. 이 중

신설 재판부인 민사 5부 재판장을 배기열(59·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법원장이 맡았다.

배고법원장은 민사 항고심을 담당해 실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기보다는 항고 결정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항고심 재판의 3분의 1개 사건을 배당 받은 것이다.

지난달부터 40여건의 민사항고심 사건을 배당받아 20여건을 처리했고 결정문의 상당수를 배고법원장이 직접 작성하고 있다.

광주 고법·지법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재판에 나선것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비판과 불만 여론이 커짐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법원 노력이다"면서 "기존 재판부의 부담과 담당 사건이 줄어 빠른 재판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매입형 유치원 사업 부적절 처리...징계 정당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필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광주시 교육청 소속 전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과정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 업무를 총괄했다. 사업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화하는 사업이었다. 같은해 5월 이 사업에 B유치원이 참여를 신청했고 필수서류 자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학부모 단체 등이 같은 해 8월부터 회의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록 조작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 10월에 중단됐다.

이후 교육청은 A씨에게 '불문경고' 징계를 내렸고 A씨는 '관리책임을 다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영회의록 위조는 선정의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고 위조 여부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에 따라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면서 "A씨는 유치원 측이 내놓은 형식적인 답변만을 맹신해 행정 불신까지 초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매입형유치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주고 받은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시교육청 공무원·브로커 등 5명은 기소돼 1심 선고가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또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광주시원도 해외 도피를 하던 20개월여 만에 귀국해 구속 송치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